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이동성*

The Effect of Designation of Korean Enterprise Zone on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Lee, DongSung*

Abstract: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re designating and implementing enterprise zone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However, there are still mixed view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nterprise Zone's policies. At this 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policies in the form of enterprise zones in the country and see how these policies affect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reas designated as enterprise zones were becoming more economically vitalize than those that were not.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redundant designation of enterprise zones has a greater effect on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than single designation.

키 워 드: 엔터프라이즈존,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 지역경제 활성화

Key Words: Enterprise Zone, Korean Enterprise Zone,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1. 서론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이란 소규모의 황폐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민간기업의 활성을 장려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영국에서 처음 시도되었다(Harrop, 1918). 이러한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영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23개의 특정지역을 지정·실시하여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약 5만 명 이상의 고용증가를 가져왔다(매경이코노미, 2004).

또한, 미국은 이러한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의 효과를 인식하고, 1980년대 몇몇 주정부의 지방중소도시들을 대상으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는 그 범위가 확정되어 38개의 주정부에서 실시하였다.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그 엔터프라이즈존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크게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으로 구분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10).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을 실시하여 민간기업의 지역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형 엔터프

라이즈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의 정의 및 개념을 살펴보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여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2. 엔터프라이즈존 관련 문헌검토

2.1 엔터프라이즈존의 정의 및 효과

엔터프라이즈존이란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낙후된 지역에서 최소한의 정부개입으로 민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영국에서 1981년 최초로 11곳에 지정되었으며, 이는 10년 단위로 갱신되게 설정하였다.

국토연구원(2014)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토지세 면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산업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 면제,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리고 초기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산업정책 측면에서 다루고 있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산업연구처 연구원(ds.lee@spacen.or.kr).

었으나, 최근에서는 도시재생 또는 지역활성화 측면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 즉, 초기 엔터프라이즈존은 세제혜택 등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개발함이 목적이였다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재생 또는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각 지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세제혜택도 지역별로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존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엔터프라이즈존 정책효과에 대해 찬성하는 연구로 Dowall(1996)와 Orlebeke(1982)는 실증분석을 통해 엔터프라이즈존을 통한 기업 유인책을 쓴 지역에서는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Dowall(1996) 연구에서는 뉴저지 주의 경우 1987년부터 1년 사이에 무려 10개의 엔터프라이즈존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약 9,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과 9천만 달러의 투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존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엔터프라이즈존의 정책효과를 비판하는 연구들은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강화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한다. Rubin & Wilder(1988)는 기업은 입지할 장소 및 지역 내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을 통한 새로운 기업유치 및 투자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진정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 세입의 줄어들어, 기반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공공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관점에서 Vaughn(1979) 또한 기업의 사업결정은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의 사항보다는 시장접근성, 비용, 노동력 이용가능성, 공간이용성 등의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세제혜택 기업유치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엔터프라이즈존 지정 전과 지정 후 지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교분

석만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엔터프라이즈존 지정 지역과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엔터프라이즈존이라는 개념은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엔터프라이즈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도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엔터프라이즈존은 앞서 설명했듯이, 지정된 지역에 개발토지세 면제, 산업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및 도시계획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한다. 한국개발연구원(2010)에 따르면 국내에서 엔터프라이즈존처럼 지역 내 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는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라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2010)의 연구를 인용하여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4가지 제도를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설정하였다.

3. 실증분석

3.1 분석개요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으로 한다. 2018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한 이유는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 즉,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자유경제구역, 기업도시 지정이 완료되고,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연도가 2018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여부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단위는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시·군·구 단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기술했듯이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증가로 판단하였고, 지역 간 GRDP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ln(\text{GRDP})$ 를 최종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Table 32. 변수 설정

구분	변수	단위	비고
종속변수	GRDP	원	ln(GRDP)
독립변수	도시면적	m2	-
	행정구역면적	m2	-
	수도권여부	더미	0: 비수도권, 1: 수도권
	인구	명	-
	인구밀도	%	-
	산업체수	개	-
	기초생활수급자	명	-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여부	더미	0: 미지정, 1: 지정
엔터프라이즈존 중복지정	개	-	

Table 33.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단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GRDP	원	229	2.E+11	3.E+13	5.71E+12	6.043E+12
도시면적	m2	229	2,825,943	885,866,408	110,438,318.6	111,804,228.6
행정구역면적	m2	229	4,466,946	1,817,964,819	461,331,974.4	395,167,800.9
수도권여부	더미	229	0	1	0.287	0.4533
인구	명	229	7,764	1,071,913	211,218.67	206,933.091
인구밀도	%	229	0.000017	0.026963	0.003647	0.006018
산업체수	개	229	15.8759	292.4649	32.7623	22.5231
기초생활수급자	명	229	6.772	107.699	42.4749	20.3454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여부	더미	229	0	1	0.57	0.496
엔터프라이즈존 중복지정	개	229	0	4	0.778	0.8506

독립변수는 크게 통제변수와 분석변수로 구분된다. 통제변수는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GR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고, 다중공선성 검사(VIF)를 통해 최종적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통제변수는 도시면적, 행정구역면적, 수도권 여부, 인구, 인구밀도, 산업체수, 기초생활수급자수 등이다. 또한 분석변수로는 엔터프라이즈존 지정 여부와 엔터프라이즈존 중복지정으로 설정하였다. 엔터프라이즈존 지정 여부로는 엔터프라이즈존 중복지정 여부 변수에서는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자유경제구역, 기업도시 중 한 가지 정책이라도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1, 만약 다음 중 한 가지 정책이라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0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엔터프라이즈존 중복지정 변수는 한

지역 내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자유경제구역, 기업도시가 중복으로 되어있는 경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효과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으로만 설정되어 있고, B라는 지역에는 산업단지와 기업도시가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A 지역은 1, B 지역은 2의 값을 가지게 된다.

3.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은 기본 GRDP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통제변수(도시면적, 행정구역면적, 수도권 여부, 인구, 인구밀도, 산업체수, 기초생활수급자수, 평균교육년수 등)와 엔터프라이

Table 34. 모델1 분석결과

독립변수	Coef.	SE	T-value	P-value
도시면적	-0.001	0.000	-0.101	0.920
행정구역면적	0.009	0.000	1.465	0.144
수도권여부	-0.063	0.050	-1.252	0.212
인구	0.009	0.000	7.548	0.000
인구밀도	12.635	4.251	2.972	0.003
산업체수	0.003	0.001	3.587	0.000
기초생활수급자수	-0.004	0.001	-2.990	0.003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여부	0.206	0.037	5.524	0.000

Table 35. 모델2 분석결과

독립변수	Coef.	SE	T-value	P-value
도시면적	-0.006	0.000	-0.333	0.739
행정구역면적	0.008	0.000	1.320	0.188
수도권여부	-0.049	0.049	-0.999	0.319
인구	0.009	0.000	7.518	0.000
인구밀도	13.747	4.116	3.340	0.001
산업체수	0.003	0.001	3.543	0.000
기초생활수급자수	-0.004	0.001	-2.955	0.003
엔터프라이즈존 중복지정	0.144	0.021	6.769	0.000

즈존 지정여부 변수를 살펴본 모델1과 GRDP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통계변수(도시면적, 행정구역면적, 수도권 여부, 인구, 인구밀도, 산업체수, 기초생활수급자수, 평균교육년수 등)와 엔터프라이즈존 중복지정 변수를 살펴본 모델2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분석을 구분하여 살펴본 이유는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여부와 엔터프라이즈존 중복지정 변수 사이에 VIF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먼저 모델1의 결과를 살펴보면, F 검정결과 75.398로 1% 수준에서 유의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성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형 설명력(adj R-square)도 74.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델2의 경우도 역시 F 점정결과 81.496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설명력도 76.0%로 높게 나타났다.

모델1과 모델2의 통계변수 영향력을 살펴보면, 두 모형 다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통계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인구, 인구밀도, 산업체수, 기초생활수급자수 등으로 나타났는데, 인구와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GRDP는 증가하였고, 산업체수가 증가할 경우에도 역시 GR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증가할수록 GRDP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델1의 분석결과를 통해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여부에 따른 GRDP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이 된 지역일수록 엔터프라이즈존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보다 GRDP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2의 분석결과를 통해 엔터프라이즈존 중복지정에 따른 GRDP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엔터프라이즈존 중복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엔터프라이즈존이 중복적으로 지정될수록 GRDP가 상승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3. 결론

엔터프라이즈존은 낙후된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었고, 소규모의 황폐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최소한의 정부개입으로 민간기업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그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엔터프라이즈존 정책은 미국과 영국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빠르게 정착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엔터프라이즈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의 엔터프라이즈존 형태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엔터프라이즈존처럼 기업육성을 위해 지역 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살펴본 결과,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4개로 나타났다. 이 제도들은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으로 구분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엔터프라이즈존이 지정된 지역은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보다 GRDP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역 내 엔터프라이즈존의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또한 지역 내에서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이 중복 지정되었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엔터프라이즈존이 중복 지정이 많이 될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엔터프라이즈존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했을 때 국내에서는 엔터프라이즈존 지정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엔터프라이즈존처럼 기업육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의 정책적 실효성 분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종속변수의 세분화이다. 엔터프라이즈존의 정책적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들은 다양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GRDP로만 종속변수로 한정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 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엔터프라이즈존 영향력을 파악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 세분화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데이터 구축의 한계로 인해 전국 시·군·구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한국형 엔터프라이즈존이 지정된 구역은 보다 좁다. 이에 향후 보다 세분화된 지역 단위로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단순히 GRDP만으로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측정하는 변수로 GRDP를 많이 활용하기는 하나, GRDP의 증가만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GRDP 외 추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표할 수 변수들을 모색하여 엔터프라이즈존의 효과를 측정한다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국토연구원. (2014). 「2014년 영국 해외출장 북명서」.
- 김광수. (1996). “이상치 영향분석을 위한 로버스트 회귀모형 개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수 외. (2012),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ALC 경도예측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7권 제2호. pp.101-111.
- 산업통상부 산업물류투자팀. 자유무역지역 홍보 브로셔. 2014.6
- 백연경. (2006). “관광레러형 기업도시의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 태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휘. (1998). 「한국의 공업단지」. 국토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2010).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길선. (1999).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utler, S. (1980). “Urban renewal: A modest

- proposal” . Policy Review. 13: 95-100.
- Dowall, D. E. (1996). “An evaluation of California’s enterprise zone programs” .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0(4): 352-368.
- Grady, D.O. (1987). “State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s: Why do states compete?” .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19(3): 86-94.
- Gunn, E.M. (1993). “The growth of enterprise zones: A policy transformation” . Policy Studies Journal. 21: 432-449.
- HUD. (1986). State-designated enterprise zones: Ten case studies. Depar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Washington, DC.
- Missouri Revised Statutes. (1991). s 153.200.
- Rubin, B. M. and Wilder, M. G. (1988). “Targeted redevelopment through urban enterprise zones” . Journal of Urban Affairs. 10(1): 1-17.
- Orlebeke, C.J. (1982). “Administrating enterprise zones: Some initial observations” . Urban Afrrair Quaterly. 18: 31-38.
- Vaughn, R. J. (1979). State tax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Council of State Planning Agencies.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29일

논문심사일 2020년 12월 19일

논문게재일 2020년 12월 30일